

# 대학의 기본 개념과 역할에 대한 발전적 비전



김 승 조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sjkim@snu.ac.kr

약력 :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 학사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and Engineering  
Mechanic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S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and Engineering  
Mechanic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hD

전 국방과학 연구소 연구원

현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소장

**“대학은 로마 캐톨릭 교회 다음으로 가장 오래 역사를 이어온 기관이다.”**

20세기는 변화, 변혁의 시기였다. 이 변화와 변혁은 정치, 사회 분야에서 만이 아니라 교육,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학에도 큰 압력을 주었다.

극소수 엘리트들의 교육, 훈련기관에서 대량 교육체제로의 이전, 여러 학문 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리드하기 위한 연구의 강조, 사회의 부속품 정도로 치부되었던 대학의 위상으로부터 사회의 중심적 기관으로의 상승 등이 변화의 흐름이었다. 기존의 대학들은 이러한 변화의 패러다임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며 변화 발전해 왔으며, 또한 급증하는 대학 수요에 맞추어 전 세계적 각국에서 생겨난 수많은 대학들은 기존 대학체계를 모방하면서 급격한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왔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은 20세기 대학의 발전을 이끈 미국 등 선진국에서보다는 우리나라를 위시한 대학 후발 국가들에서 더욱 컸었다. 이러한 후발대학들은, 때로는 각국의 사회정서에 잘 맞지 않는,

겉모습만 서양을 모방한 대학체계와 빈약한 재정 여건에다 열악한 대학의 교육 연구 인프라를 가지고 몸집만 불린 면이 많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대학체계의 내실없는 팽창은 사회와 일반대학수요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사실 현재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100년 전인 20세기 초, 영국식제도에 독일식을 혼합한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를 잡은 미국 유수의 대학들이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받은 비판을 요약하면

- 1) 학생들의 도덕적 사회적 개발에의 무관심
- 2) 연구 활동 선호로 인한 교육의 등한시
- 3) 대학원생들이 학부생 교육을 담당함
- 4) 쉬운 과목을 쫓게 되는 선택과목 시스템

(Choosing a college, Robert D Honigman, iUniverse, 2003) 이었다고 하는데, 이 4가지 항목들이 21세기 현재의 한국대학이 받는 비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데 대해 독자 여러분도 놀랄 것이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미국 대학보다 교육적으로 100년쯤 뒤졌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미국 대학들도 앞의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면 현대 사회 속에서

의 대학체제가 가지는 치유하기 힘든 모순인지도 모른다.

21세기 들어서는, 20세기를 지배했던 여러 패러다임들이 더욱더 근본적으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는 사회로 하여금 대학에 더빠른 변화의 압력을 주게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현재 세계의 모든 대학들이 체제, 커리큘럼 등의 개선을 통해 변화에 대처하려고 전에 없이 몸부림 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공학교육학회로부터 상기 제목의 원고 집필의뢰를 받았다. A4용지 4매 정도의 분량이었으므로 처음에는 저자가 공학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적당히 늘어놓으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흔쾌히 응하게 되었다. 그러나 집필을 하려고 깊이 생각 할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져 갔다. 우선 제목이 암시하는 바는 공학교육만이 아닌 넓은 범위의 대학교육이고 게다가 발전적으로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할 비전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주제는 아마 수년간의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한 깊은 사고를 통해서 겨우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더라도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너무나 중대하고 깊은 주제이다. 특히 대학체제의 혁신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여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때 가볍게 나서서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종이만 낭비하는 재탕, 삼탕의 잡문 몇 페이지에 정력을 낭비할 것 같아 몇 번 사양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나름대로 조사한 대학의 발전 역사를 간단히 살피면서 대학의 기본개념과 역할을 엿보고 그 후 21세기 현재에서의 대학발전 방향을 잡는데 감안되었으면 하는 필자의 의견을 간단히 붙이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대학 기본개념과 역할이 대학의 발전 역사와 크게 무관하진 않을 터, 여기에서는 서양의 대학

발전을 간단히 보기로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대학이 있었고, 그 제도로부터 배울 점도 있으나, 현재의 우리대학 시스템이 유럽, 미국에서 발달한 개념의 대학이므로 이 논의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발전은 영국식과 독일식의 두 개의 전통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으로 대변되는 영국식은 칼리지로 불리는 건물에 훈육교사(tutor)와 학생이 같이 거주하면서 잘 교육받은 신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넓은 의미로는 이들 대학에 엘리트 학생들을 공급해주는 사립 보딩스쿨 시스템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영국식 대학은 선배가 후배들을 단련시키고 끌어주면서 면면한 전통을 이어가게 하여 대영제국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평가되며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영국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독일 대학 시스템은 영국식보다는 보다 발전적이며 전문화되어 있다고 보인다. 독일 대학생들은 9년에 걸친 엄격한 김나지움 교육을 거친 후 21,22 세 정도에 대학을 입학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집이나 보딩하우스에 거주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캠퍼스라는 개념 없이 시내의 건물이나 벤치에서 강의를 듣는 식이었다. 학생들은 강의 이외의 시간에는 학생클럽(corps)을 통해 친구 사귀기, 음주, 미팅 등의 사회생활을 즐겼다. 따라서 독일 대학의 주요 역할은 연구였다. 인간지식 전 분야에 걸친 탐구였고 과학과 인문학의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고 인간지성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학체계를 통해 19세기 말경에는 독일대학의 교수진들이 각 분야의 학문과 연구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게 된다.

미국 대학 시스템은 결국 영국과 독일 시스템의 장점을 받아들인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초

기에는 당연히 영국식을 받아들이고 기숙사제도를 도입했다. 많은 대학이 종교단체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교내외적으로 종교적, 도덕적 의무와 끊임없는 면학을 요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교수들의 상호 적대관계가 증폭되어 살상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19세기 말로 가면서 미국대학도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 수준을 자랑하던 독일대학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독일 대학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으로 1914년경에는 만 명 이상의 미국학생들이 독일대학에서 유학하면서 독일의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우고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도 점진적으로 독일식 대학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또한 과학 분야가 이즈음에 대학 교육체계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1900년 전후에는 미국대학들이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학교 조직 및 운영체계를 가지게 된다. 전공으로 분리된 학과와 이 학과들이 교과과정 및 교수의 채용을 주도하고, 학생들은 필수 교과 과정 요건만 만족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교수들은 교육보다는 연구를 더 중시하는 형태로 된 것이다. 이러한 대학체제는 결국 학부과정은 영국 제도를, 대학원 과정은 독일 제도를 도입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학부생들에게는 독일식의 impersonal한 강의를, 그리고 대학원생들에게는 영국식의 개인별 지도를 하는 양쪽 방식이 뒤바뀐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주요 대학체제는 앞서 언급한 4개 항목의 비판에 시달려왔으나 지금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미국은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최고 국력의 나라가 되고 전 세계의 인재들을 끌어 모으면서 많은 미국의 대학들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다.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에

걸맞게 미국은 학문, 산업,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을 주도하게 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고도의 지식으로 무장된 대학졸업생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반전 학생운동이 잦아든 1960년대 이후부터는 대학졸업장이 좋은 직장을 얻는데 필수 요건으로 등장하면서 종래의 자유분방한 대학생활이 졸업 후의 취직을 준비하는 바쁜 과정으로 바뀌어졌다. 미국도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취업의 필수자격이 대학졸업장이 아니었고 졸업장을 요구해도 높은 학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 법과, 의과, MBA 등의 높은 소득과 지위를 보장하는 관련학과들의 선호도가 높아져가면서 초기의 대학이념에 걸맞는 학문추구를 목표로 하는 전통의 인문학 계통 학과들은 위기감을 들어내고 있다.

대학의 발상지인 영국, 독일에서도 근년에 들어 전통적인 대학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대학생의 대폭 증가이다. 90년대 초에 이미 60년대에 비해 5배 이상의 학생 증가로 인해 종래의 이상적인 인재 양성에 적신호가 왔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수 엘리트 계층의 교육을 위해 존재한 대학시스템이 이 많은 대학 재학생들로 인해 미국식의 대량 대학교육 체제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영국 또한 지도급 인사 배출을 위한 엘리트 교육체계가 변화하면서 학문 분야별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대학제도는 어떤 식인가? 아무래도 우리의 초기 대학제도는 서구식 대학이 처음으로 자리 잡는 일제시대의 일본식일 것이다. 일본의 대학이 대체적으로 독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므로 우리의 대학도 독일대학의 형식이었다고 본다. 해방 후에는 미국대학의 강한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대학이 외형적으로는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일본식이 일부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일반 사회가 각자 인식하는 대학의 정체성, 의무, 운영체계 등이 각 집단의 이해와 편익에 따라 미국식과 일본식을 오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교수, 학생, 사회에서 서로 다른 기준에서 사회정치 논리에 따르는 수가 많고 이로 인해 대학은 끊임없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도 내부에서는 그 비판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수도 많다. 비판론자들은 대학주체들이 자기들 편한대로 미국과 일본식을 적당히 적용하여(실제로는 단점들을 모아)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제도의 옹호자들은 우리가 미국과 일본 제도의 장점들을 수용해서 빈약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모든 기준 질서들에 대한 비판적 개혁이 사회변화의 주류를 이루면서 동양적 전통에 의해 상당한 지위를 누리던 대학주체에 대해서도 일종의 기득권포기 요구가 있게 되고, 특히 상위권 대학들에는 이러한 압력들이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불어닥치고 있다.

대량 대학 교육시대에 대학 교육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대학의 기본이념이 된다. 초기의 상아탑 개념의 학문의 증진 전수가 계속 견지되어야 하는지 또는 졸업 후의 취업에 대비한 전문성 있는 직업 관련 교육이 우선인가로 많은 논쟁이 있다. 또한 대학(university) 교육과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의 개념적 대립, 학부중심, 연구중심대학의 대립 등이 대학의 이념 역할 등을 논할 때 빈번히 목격된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적 혼란 속에서 21세기에 적절한 대학의 이념은 무엇이며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젊은 시절에 낭만과 자유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 엄격한 학문체계의 전수발전?

아니면 사회인으로서 지도력 있는 인재의 양성? 졸업 후의 직업 환경에 걸 맞는 아주 실제적인 전문적 직업교육? 필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대학이 유일한 교육기관 이었고 이를 통해서만 학문을 익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교육에 나서고 있고, 또한 방송들이 때때로는 최고의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기도 하며 비디오 등의 저장매체를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강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영향력 면에서 김용옥씨의 텔레비전 노자 도덕경 강의를 넘어서는 강의가 어느 대학에서 있겠는가? 이제는 인터넷이 지식의 보고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의 세계성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대학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학 커리큘럼에 사회 제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분야의 교과목들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 인문, 사회 분야의 단순한 지식들은 앞에서 언급한 사회 교육 기관 혹은 자율 습득 매체들을 통해서 익힐 수 있다고 보고, 교수와 학생이 직접 대면하는 교육을 통해야 효율적인 지식 전수 및 이해가 가능한 분야들을 위주로 교과과정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즉 지식 전수가 위주인 일부 인문 사회 과목들의 실제 설강은 과감하게 줄이고 자격시험과 같은 제도를 두어 준비된 학생들은 통과 여부를 통해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공동체 일원으로써 도덕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감을 부양시킬 수 있는, 정말, 말그대로 교양을 갖추게 하는 교양과목들을 배치하여 수강하게 하자. 그리고 고학년 과정에서는 일단 사회로 진출해 나가서는 습득하기 어려운, 학교가 아니고는 이해의 수준에 오르기 힘든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교과 과정 체계로 가자는 것이다.